

## 【 해외금융 뉴스: 일본 】

### 일본 대지진 · 방사선누출로 경제침체 장기화 전망

- 일본 동북지역 대지진으로 인해 사상자가 1만여명에 이르고 경제적 피해규모는 약 16조엔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피해복구에만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.
  - 경제적 피해규모가 약 16조엔(2천억 달러)으로 추정됨에 따라 보험회사의 예상손실액 규모도 9,480억~2조엔(120억~250억달러)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.
  - 그러나 원전 폭발 및 대규모 정전으로 인해 국내생산의 차질이 발생할 경우 피해가 국내총생산의 5%에 해당하는 21조엔(2,700억 달러)까지 확대될 수 있으며, 피해복구 정부비용만 최대 10조엔(1,200억 달러) 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.
- 경제 전문가들은 원전 폭발사고 등으로 지진 피해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 지난해 4분기부터 침체 현상을 보였던 일본 경제가 다시 회복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함.
  - 대지진으로 핵심 인프라 시설이 대거 파괴되고 자동차와 전자 등 핵심 산업이 큰 타격을 받은 것이 경제 회복에 부담으로 작용하며 원전 중단에 따른 전력공급 부족은 생산능력을 저하시켜 수출의존형 일본 경제에 충격을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됨.
  - 복구자금 마련을 위해 일본 정부가 증세에 나서면 소비여력이 축소돼 일본 경제의 침체 현상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됨.
  - 노무라 증권은 지진 이전에는 금년 2분기에 일본 경제가 바닥을 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현재는 3분기 또는 4분기에나 저점을 탈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.
- 한편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인 일본이 막강한 저력을 바탕으로 복구 작업이 본격화되면 건설 및 설비투자의 증가로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도 제시됨.
  - BBC는 대지진이 일어나기 전에는 일본이 2011년 2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본 경제가 단기적으로 위축되겠지만 3분기부터는 회복세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봄.
  - 일반적으로 지진 등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경제가 단기적으로 후퇴하지만 대규모 복구자금이 투입되는 등 복구 작업이 본격화되면 경제가 빠르게 반등하면서 V자형 회복을 보이는 현상이 고베지진의 경우에서도 발견된 바 있음.

(요미우리신문, 일본경제신문, 마이니치신문, 지지통신, 노무라증권 3/16, 3/17 뉴스종합)